

비평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쓰기 교육

- 평전(評傳)을 중심으로 -

임 정 순*

〈차 례〉

- I. 서론
- II. 평전 쓰기 교육의 관점과 필요성
 - 1. 평전의 개념과 평전 쓰기의 관점
 - 2. 평전 쓰기 교육의 필요성
- III. 평전 쓰기의 전략
 - 1. 관점 정하기
 - 2. 자료 선별하기
 - 3. 줄거리 구성하기
- IV. 결론 : 평전 쓰기의 위계화 모색

I. 서론

국어교육에서 '쓰기'가 의미하는 함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그런데 쓰기는 단지 글을 활용하여 의미를 소통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글쓰는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되고,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 등이 연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쓰기는 사회·문화적인 국면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적 실천 행위이기도 하다.¹⁾

* 인천교대 강사(wizkorean@hanmail.net).

1) 쓰기 혹은 창작이 사회·문화적 실천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논의는 다음 참조.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7. ; 최인자, 「문식성의 사회·문

이렇듯 쓰기는 사회·문화적인 실천 행위로서 인간의 총체적 능력의 발현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비평적 문식력(critical literacy)²⁾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평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해석하고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즉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아름다움과 추함, 의미와 가치 등을 따지는 행위가 비평 행위에 속한다. 이는 비평을 행하는 주체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해석·평가하는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비평은 논리학이나 과학의 세계와 같이 주체의 개입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 주체가 개입하여 대상과 상호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늘날에 요구되는 문식력이 “문자언어를 식별하는 기초 기능 수준이 아니라 고등 차원의 비판적 문식력”³⁾과 “텍스트를 통해서 ‘나’를 읽고 ‘나’를 쓰며, 세계를 읽고 쓰는 것”⁴⁾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비평과의 관련성은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비평적’ 차원을 강조한 비평적 문식력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고등정신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평적 문식력을 기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것은 수용과 생산의 양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 논의 가운데 ‘비평적 글쓰기’ 역시 그렇다. 이 용어는 작품을 읽고 감상자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여러 형태의 쓰기를 의미한다. 주로 문학교육의 대상으로서의 작품과 그것을 비평하는 주체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

화적 접근법과 국어교육,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 2001.

2) 김성진은 ‘critical’을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비평’이라는 용어가 지닌 함의를 살려 ‘비평’을 제안한 바 있다(김성진, 「문학교육에서 비평활동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30호, 2002.). ; ‘literacy’는 논자에 따라 ‘문식성(文識性)’, ‘문해력(文解力)’, ‘문변력(文辨力)’, ‘문용력(文用力)’ 등으로 쓰인다. ‘문용력’은 문영진이 텍스트 생산의 측면과 다른 텍스트 체험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문영진, 「서사 교육의 방향 설정에 관한 일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3집, 2001.12.).

3) 박수자, 「21세기 문식력과 국어교육」, 『21세기 문식력과 국어과 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가을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02, p.197.

4) 김명순, 「문식력 개념의 변화 양상과 재개념화 방향」, 앞의 자료집, p.191.

그런데 문제는 비평 대상이 살아 있거나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인간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한 인간을 평가하는 데에는 그가 남긴 작품만으로 가능하지 않거나와 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개입하기 마련이다. 인간을 알고 그를 평가하는 일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차원까지도 통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존재론적인 변화도 모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비평하는 것만큼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글이 평전(評傳)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평전을 대상으로 평전 쓰기에 대한 관점과 그 필요성을 밝히고, 평전 쓰기의 전략과 그 실천 방법을 논의해 봄으로써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평전 쓰기 교육의 관점과 필요성

1. 평전의 개념과 평전 쓰기의 관점

평전은 전기(biography)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다. 전기는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개인의 역사'⁵⁾ 혹은 '어떤 삶의 기록'⁶⁾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전기(傳記)라는 용어를 보면,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을 전(傳)이라 하였고, 한 사건의 전말을 묘사한 글을 기(記)라 하였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⁷⁾ 따라서 전기는 개인의 인격과 성격, 업적, 사

5)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1, p.300.

6) John A. Garraty, *The Nature of Biography*, New York: Alfred · A · Knopf, 1957, p.3.

7)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p.15. 전(傳)은 '전수'의 뜻이 '기

상 등 개인의 총체적인 삶의 모든 국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역사는 그가 자란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은 가족, 친구를 비롯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 속에 존재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개인의 역사가 쓰여지기 위해서는 남다른 공적을 세웠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고전 문학사에서 전기(傳記)는 특히 이와 관련된 교훈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⁸⁾ '교훈성'의 측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서점에 쏟아지는 이른바 위인전기가 이를 증명해준다. 위인전기의 목록에 든 인물들은 옛날과 오늘날을 막론하고 역사상 남보다 탁월한 인물로서 수용자들에게 교훈을 준다.⁹⁾

다른 사람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전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역사학과 해석학의 발달에 힘입어 비평적 전기 즉 평전으로 발전한다.

비평적 전기, 즉 평전에서는 한 인격의 통일적 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저자가 사료를 선정하고 해석하여 이를 잘 다음은 문제로 처리한다. 평전의 저자는 인물의 형상화라는 일종의 예술, 즉 문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다른 문인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태도를 문제나 어조, 자료의 선택 및 해석을 통하여 드러낼 수

(記)는 '해석'의 뜻이 강조되고 있다.

- 8) 열전(列傳)은 계세징인(戒世懲人)하고 옳고 그름이나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전범이 될 만한 인물을 입전(立傳)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전(私傳)은 덕이 있어도 드러나지 않거나 본받을 만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탁전(托傳)은 현실의 부조리 모순을 풍자하고 깨우치기 위해 특정인의 행적을 통하여 우의(寓意)하거나, 가전(假傳)은 의인화된 사물을 열전체 형식에 맞추어 계세징인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양식이다. 김용덕, 앞의 책, pp.15~29. 서양의 경우에도 이러한 교훈성이 강조된 전기가 창작되었다.
- 9) 이러한 전기가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특히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를 자서전이라 한다. 서양의 경우 초기의 계몽의식의 산물로서의 전기는 개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자기가 겪은 일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자서전의 발달로 이어졌다. 서양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자서전 문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조선 시대의 유교 이념과 개화기의 혼란상, 식민지 경험과 분단 현실, 이로 인한 이념 부재가 개인의식의 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있다.¹⁰⁾

위와 같은 견해는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보면 평전은 인물에 대한 사료 등을 통해 인물에 대하여 해석과 평가를 함으로써 인물을 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문학 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작가의 태도, 관점 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평전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역사 기록물과 다르다. 평전은 인물의 생애와 관련된 사실의 측면에 충실하되 그것과 함께 작가의 비평적 관점에 따라 인물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덧붙여져야 한다.

한 인물의 생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인물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식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문적인 연구자 혹은 작가만이 평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성도와 전문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학습작가 나름의 관점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인물에 대한 평전 쓰기가 가능한 것이다.¹¹⁾ 따라서 학습작가의 수준을 고려할 때의 평전 쓰기는 살아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실제의 인물과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의 경험과 됴됨이에 대하여 해석하고 평가한 글을 두루 통칭하는 것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전 쓰기를 문학 행위의 일종으로 본다고 할 때, 평전이 문학 전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문학전기는 작가의 작품과 생애에 대한 가치판단과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비평과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 문학전기는 '작가론' 혹은 '작가연구'라는 형식을 띠는데 문학사적으로 일정하게 평가를 받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작가의 문학적 생애연구로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가론(연구)은 문학을 인간의 정신적 산물로 보는 입장에서, 작가의 체험이 어떻게 작품으로 변형되는가 하는 구조와 그 양상을 밝히는 것이다.¹²⁾ 이는 문학 작가를 대상으

10) 이상섭, 앞의 책, pp.300~301.

11) 따라서 학년이나 발달 정도에 따른 위계화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결론 부분에서 모색해 보도록 한다.

로 문학학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다루고자 하는 대상 인물이 정치인이거나 미술가 혹은 사상가, 자기 부모나 이웃일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 지점이 평전이 문학평전과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경계이다. 정치인이나 예술가들에 대한 평전이 문학평전의 방법과 유의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지만, 대상인물과 자료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문학학(연구)에서 다루는 평전과는 다른 관점이 요구되는데, 국어교과에서는 문학평전만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문학학과 국어교육이 갈라지는 부분이다. 국어교육에서 다루는 평전은 문학(작)가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목적에 합당한 다양한 평전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실제로 출판된 평전들에는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등장하며, 교과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전의 교육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국어교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략한 것이 현실이다.¹³⁾

또한 교육적 관점을 고려할 때 역사상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다룬 평전만을 학습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 위인을 다룬 평전의 교육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와 민족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인물들이 주는 계몽성은 성장기의 학습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평전은 대개 치적을 부각시키거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킴으로써 인물의 삶을 이해하거나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로서 시의성과 교육성을 아울러 고려한 평전 교육이 되어야 한다. 타자로서의 인물의 삶을 보다 잘 이해할 수

12) 우한용, 「작가론의 방법」,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87, pp.13~14.

13) 제7차 교육과정 초등 국어 3-1 강감찬 장군, 3-2 나비 박사 석주명, 4-1 유관순, 정약용, 6-2 백범일지, 연 할아버지 등이 실려 있다. 그러나 유관순이나 백범일지를 제외하고는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는 안창호, 신채호, 이순신, 한용운, 폴란드 소녀 등이 실려 있지만, 제7차 중학 국어에는 화가 이중섭이 실려 있는 정도이다. 고등 국어의 경우 6차 국어에는 윤동주가 실려 있지만 7차 국어는 이에 다루고 있지 않다.

있도록 그 사람의 업적뿐 아니라 실패와 좌절, 고난과 고뇌, 오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평전 교육은 평전 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들은 평전을 통해 인물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물론 읽기만으로 교육적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쓰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쪽만의 교육이 되기 마련이다.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타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터득하고 그것을 평전이라는 형식의 글로 담아낼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전 쓰기는 뛰어난 인물이나 특정한 영역과 관련된 인물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석·평가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인격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물에 대한 평가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주체 자신의 변화를 모색할 때 가능한 것이다.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평전 쓰기는 한 인물의 일대기를 온전히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본격적인 평전이라면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과 그 사후에 이르기까지 인물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물론 한 인물을 정당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하지만, 학교 교육을 염두에 둘 경우 시기를 한정하거나 서술 방법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평전 쓰기 교육의 필요성

평전 쓰기는 왜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존 논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평전 읽기와 관련해 볼 때 흥미성과 교훈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남다르게 살다간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거니와 또한 그것을 통해 학습자들이 터득하는 가치관을 비롯한 여러 측면들은 교육적 의의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실린 전기들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은 경청할 만하다.¹⁴⁾ 이같은 판단에는 전기란 학습자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평범하지만 훌륭한 인물을 다름으로서 그들의 삶의 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또한 전기 학습이 읽기로 끝나지 않고 쓰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사례를 들고 있는 점 역시 의미있는 일이다.¹⁵⁾ 그 근거로 접근의 용이성과 기법의 단계성을 제시한 것은 논의를 더욱 진척시켜보야 할 사항이지만, 그것만을 기준으로 평전(전기) 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는 한계를 지닌다.

전기가 지닌 교육적인 근거로 Jerry D. Flack는 4R 즉 '반성(reflecting), 반응(responding), 조사(researching), 습관(riting)'을 든 바 있다.¹⁶⁾ 반성(reflection)은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감정적인 관계로써, 동일시(identification), 정신적 고양(inspiration), 계몽(illumination)으로 구성된다.¹⁷⁾ 반응(responding)은 전기 독자가 전기의 제재에 대하여 인지적, 정의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관련되며, 조사(researching)는 전기 독자로 하여금 전기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일차적인 자료를 탐구하는 일과 관련된다. 습관(riting)은 학습자들이 전기를 쓰거나, 전기에 대한 비평문을 쓰는 태도와 관련된다. 요컨대 전기는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인지적 차원뿐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 윤리적인 문제와 같은 정의적 차원에서 나아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내면화와 연결됨으로써 정신적인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견해는 평전 쓰기 교육의 타당한 근거로 제공될 수 있

14) 반숙희·박완수, 『갈래별 글쓰기』, 나라말, 2000, p.188.

15) 그 근거로 시나 소설에 비해 언어면, 내용면에서의 접근의 용이성, 서사와 묘사라는 전기의 기본적 기법 수련을 통해 소설과 희곡을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숙희·박완수, 위의 글, p.188.

16) Jerry D. Flack, *Lives of Promise*, Teacher Idea Press, 1992, pp.1~4.

17) 동일시는 전기 독자가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과 같은 고통과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다. 정신적 고양(高揚)은 전기 독자가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되는 것과 관련된다. 계몽은 전기 독자가 여러 시기의 역사를 더 많이 배운다거나, 성공적인 일에 필요한 요구 조건과 희생을 배운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 특출한 개인의 공헌을 배울 때 일어난다.

다. 그러나 평전 쓰기와 관련된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 방향에 비추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평전을 쓰는 행위는 타자와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서전이 자신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라면, 평전은 타자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글쓰기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우리가 평소에 늘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그는 특별한 존재일 수는 없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평전의 대상으로 포착되는 순간, 혹은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개인의 삶이 평전을 쓰기 계급 이끄는 순간,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자의 존재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인간 존재는 타자와의 관계 밖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¹⁸⁾는 데 있다. 인간의 의식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해 간다. 타자들 가운데 특정한 개인과 마주하는 것은 그의 총체적인 삶과 만남으로써 자신을 형성해 가는 사건이 된다.

둘째, 평전 쓰기가 학습자들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이다. 평전 쓰기를 통한 타자와의 대화적 만남은 교수적 관계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 평전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과 사건들은 학습자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서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¹⁹⁾를 형성한다. 교육의 역할은 바로 학습자들에게 그의 근접발달영역에 있는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라 할 때 평전 쓰기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평전을 쓰는 학습자가 만나는 인물의 업적, 인격, 사상 그리고 그와 연루된 사건들은 그들의 잠재적 발달수준을 높이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교수자로서의 타자는 학습작가의 발달에 영향을 줌으로써 근접발달지대를 창출해낸다. 이 때 학습작가가 대하는 타자는 단순히 기능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 성

18) Tzvetan Todorov, *Mikhail Bakhtin : The Dialogical Principle*, 최현무 역, 『바흐친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7, p.133.

19) 근접발달영역은 독립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안내나 더 능력있는 동료와의 협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더 높은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L. S. Vygotsky,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86.

속으로 이끄는 존재라는 점에서 전인적 인격의 완성이라는 교육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가령 부모임을 대상으로 평전 쓰기를 할 경우, 그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이미 남다른 차원이 있다. 우선 누구보다 자신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끼치고 있는/끼칠 대상이라는 점, 자신이 잘 아는 대상이라는 점,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여러 감정이 연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중등 학교 현장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학습작가에게 전기문을 쓴 이후 감동 깊었던 점, 자신의 삶의 태도의 변화를 묻거나 학습작가가 부모에게 편지 쓰기, 부모가 학습작가에게 답장하기 등의 활동을 한 결과를 보면 전기(평전) 쓰기가 학습작가에게 주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²⁰⁾

셋째, 평전 쓰기는 고등 사고 능력의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인물의 삶과 인물이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인물이 남긴 글을 분석·종합·평가하고,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등을 이해해야 한다. 나아가 글을 쓰는 의도에 맞게 인물의 삶을 재구성하고, 거기에 적절한 자료들을 취사선택해서 인물의 삶과의 관련성과 그 심층적인 정신 세계를 밝혀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물의 삶에 대하여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전 쓰기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평전 쓰기가 비평행위의 일종이라 할 때 평전을 쓰는 학습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수행할 때 항상 비평가이어야만 한다.²¹⁾ 이런 점에서 평전 쓰기는 근본적으로 비평적 사

20) 예컨대 감동 깊었던 점으로 아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잘못을 저지르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이나, 중학교 2학년 때 왕복 12km를 겨울에 신발도 못 신고 간 것을 들고 있으며, 나와 관련된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있다. “하루 빨리 내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나는 내 소질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 때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게 살고 싶다. 그리고 겸손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싶다.” 이는 학습작가에게 도덕적인 삶, 삶에 대한 자세, 자신에 대한 성찰 등 인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숙희·박안수, 『갈래별 학생 글모음』, 나라말, 2001, pp.190~192.

21) 레온 에델은 문학전기 작가의 작업은 끊임없이 지속적인 비평행위라 강조한다. 나아가 비평이란 본질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전기적 과정(biographical process)임을

고력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전을 쓰는 행위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고력과 함께 비평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넷째, 평전 쓰기는 실천적 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글 쓰기도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평전(전기) 쓰기는 학습작가가 조사, 분석한 내용이 글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실천성이 강조된다. 평전의 대상 인물이나 주변 인물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인물과 관련된 사진, 일기, 편지, 그림, 문학작품 등 각종 자료들을 학습작가가 직접 조사, 발굴, 정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평전 쓰기는 책상에만 앉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료 탐색과 그에 대한 해석·평가 등 대화 과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Ⅲ. 평전 쓰기의 전략

1. 관점 정하기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인물에 대한 특정한 관점(a particular point of view)을 정할 필요가 있다. 평전이란 인물의 삶의 의의에 대한 특별한 인식에 따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해 인물의 이야기의 가닥이 잡히고, 인물이 남은 자료와 그에 대한 자료들이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된다. 위인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업적, 능력 등을 기리는 영웅적인 관점에서 평전이 쓰여질 수 있다. 그것은 넓은 의미의 평전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학평전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우리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운동주의 경우 평전 작가들의 관점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

배워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기와 비평의 관계는 다음 참조. Leon Edel, *Literary Biography*, 김윤식 역,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 1997, 제3장 비평.

인할 수 있다.

㉠ 모든 짐승적인 힘, 그런 악한 충동들이 일제히 튀어나와 서로 앞을 다투어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닥까지 유린하고 있던 시절-그것이 그가 살아야 했던 시대였다. 그는 그런 처절한 광기와 추악함의 소용돌이 속에 직접 몸을 담그고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살 가시밭에서 오히려 한 송이 향기로운 백합꽃이 피어나듯이, 그는 그 추악하고 몸살 시대의 한 복판에다 드넓고 선한 인간 정신의 지고함을 참으로 정결한 형상으로 드러내었다. 그의 시가 지니는 힘과 감동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²²⁾

㉡ 지사도 투사도 아닌 채 아픔 속으로 자신을 몰아가면서 끊임없이 아픔의 먹이가 되고 있는 사람-그래서 이른바 '비극적 황홀(恍惚)'의 광채로 살아 있는 시를 남기고 간 사람이 윤동주인 것이다.²³⁾

㉢ 어둠의 시대에 새벽을 노래한 그의 시가 비극의 식민지 체험 막바지에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²⁴⁾

이런 평가가 가능한 것은 그동안 윤동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그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윤동주에 대한 관점은 한마디로 '민족 시인'으로서의 그것이다. ㉠은 윤동주의 고종사촌 송몽규의 조카인 송우혜가 쓴 것인데, 평전의 마지막 절인 '민족시인으로서의 영광'의 한 부분이다. ㉡은 『윤동주 평전』을 쓰기도 한 연구자가 '윤동주의 생애'를 기술한 시작 부분이다. ㉢은 한 국문학자가 쓴 '새벽을 노래한 민족 시인'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윤동주에 대한 평전은 '민족 시인'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사상』 자료 연구실에서 쓴 평전에는 아예 「일제 암흑기의 찬란한 빛」이라는 제목하에 '그를 불

22) 송우혜, 『윤동주 평전』, 세계사, 1998, p.396.

23) 이진청, 『윤동주: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 건국대출판부, 1994, p.13.

24) 권영민, 「윤정에서 만난 시인 윤동주」, 권영민 편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1995, p.205.

러 민족 시인이라고 하는 까닭을 운동주의 삶과 문학을 갖추려 살펴 본다는 부제를 달고 있다.²⁵⁾ 따라서 평전의 부제로 제시된 글들-아직 나의 청춘은 다하지 않았다, 그의 고향을 찾아 짧고 슬프고 아름답게 살다 간 삶의 자취를 따라 등-과 그에 대한 서술은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들이다. 이렇듯 대상 인물에 대한 비평적 관점은 평전을 관류하는 핵심이다.

그런데 인물에 대한 관점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전문가적인 수준의 식견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전 작가들은 인물의 삶을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조망해 보고, 그가 남긴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본 이후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전을 쓰는 학습작가들은 인물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한 연후에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적인 식견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는 학습작가들이 그러한 접근을 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는데, 가령 인물의 전 생애보다는 특정한 시기를 택한다거나, 인물의 성격이나 잘한 일과 못한 일, 그가 이룬 업적, 인물에 얽힌 일화 등 인물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가설적 차원에서 인물에 대한 비평적 관점을 설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2. 자료 선별하기

물론 관점을 수립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았지만, 인물에 대한 관점을 정한 후에는 평전에 쓰일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일종

25) 문학사상 자료연구실, 「일제 암흑기의 찬란한 빛」, 앞의 책, p.214. “그를 민족 시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것처럼 슬프고 아름다운 시인의 삶과 죽음이 일제하 민족의 수난과 비극을 상징하고, 그의 시는 민족의 아픈 상처와 한을 대변하며, 지난 50년 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민족적인 애송시로, 세월의 벽을 넘어 언제나 겨레의 가슴속 깊이 살아 맥박 치리라고 오늘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같은 책, p.222)

의 비평적 가정 하에 수립된 관점은 자료를 선택하고 배제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자료에는 인물의 삶과 그 인물이 살았던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인물의 역사적 생애에 진실성을 부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자신의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인물의 저작물과 타자들의 증언, 그리고 현장 답사 등을 활용한다. 인물 자신의 개인적인 저작물로는 자서전, 일기, 편지, 각종 출판물, 문예 창작물, 그리고 그림, 사진, 낙서장 등 모든 것들이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인물과 관련된 유적에 대한 답사 등도 자료가 된다.²⁶⁾

그런데 이와 같은 자료들은 평전 작가의 의도와 관점에 의해 이해·해석·평가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자료 인용은 바로 잡아야 하며, 전문가의 견해도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지고 보면 추사의 시·금석학·고증학·경학·불교학·서예·회화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논문이 줄곧 발표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은 대개 추사 김정희라는 인간상 전체를 논한 것이 아니었다. 심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는 언필칭 근대적인 학문체계라고 하여 전문화된 자기 전공만의 시각으로 추사를 바라보니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우리의 학문, 특히 인문학의 큰 병통이었다. 그 동안 우리 인문학자들은 선현들의 인간상 자체에 대한 고려를 이상할 정도로 배제해왔다.²⁷⁾

이 인용은 기존의 연구들이 연구 대상을 논할 때 인물의 인생을 빼어 버린 채 그들이 남긴 글이나 특정한 방면만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이룩한 학자상은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밝힌 기존 연구 성과조차도 반성의 대상이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²⁸⁾

26) 이러한 자료 활용은 특별히 전문작가와 학습작가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학습작가들도 인물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7) 유흥준, 『완당평전1』, 학교재, 2002, pp.22~23.

28) 평전 작가들이 일차적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집'도 정밀한 검토를 요한다. 유흥준은 실제로 후지츠카가 「완당집 및 완당선생전집 편찬의 오류를 정정함」이라는

자서전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서전의 경우 자신의 일을 사실에 입각하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억에 의존한다든지 잘못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진실성과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서전에서는 의도적인 속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일기는 자서전보다는 믿을 만하다. 자서전에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이라든지 성공적이지 못한 일들 즉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기에는 그러한 실수들이 고스란히 기록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일기는 인물의 삶의 역사적이고 심리학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기는 인물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드러내 줄 수 있다. 그러나 자서전과 일기의 약점은 미래를 위해 그의 행동이나 사고를 기록하기 위해 자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²⁹⁾ 편지는 이들과는 달리 수신자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외향적이다. 따라서 편지는 자기 중심적인 개인 자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의 인격을 통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편지는 그것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쓴 사람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연설문, 소설이나 시와 같은 문학작품, 비평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많은 개인적인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³⁰⁾ 특히 비허구적인 글들은 인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가족 구성원이 남긴 기록물, 가족의 자서전, 가족이나 친척이 쓴 일기, 동료들의 견해, 인물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 인물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편지나 기록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밝혀주는 자료 등도 평전을 구성하는 자료들이다. 이것들은 평전 작가의 비평적인 안목에 의해 엄밀한 검토를 거쳐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평가적인 안목 즉 비평적 문식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글에서 『완당선생전집』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유홍준, 위의 책, pp.20~21.

29) John A. Garraty, 앞의 책, p.195. 자료에 대한 논의는 이 책의 pp.177~214 참조.

30) 특히 문학작품과 작가와의 관련성에 주목한 글쓰기는 전기적 비평 방법의 하나로써 문학연구의 주요한 방법에 속한다.

3. 줄거리 구성하기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는 모든 글은 처음, 중간, 끝이 있듯이 평전도 그렇다. 그런데 그것을 담아내는 형식에는 여행기, 회상기, 일대기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

첫째, 전기의 일반적인 형식과 마찬가지로 평전은 일대기의 형식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연대기는 일반적으로 '가계(parentage), 출생(birth)과 유년기(infancy), 아동기(childhood), 청년기(adolescence), 장년기(maturity), 노년기(old age)' 등으로 구성된다.³¹⁾ 그런데 250여 명의 전기를 분석한 Charlotte Buehler에 따르면 '어린 시절(Youth), 시련기(Trials), 초기 성숙기(Early Maturity), 성숙기(Maturity), 황혼기(Decline)' 등 다섯 단계가 가장 적절한 연대적 단위이다. 물론 한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의 단계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관점과 의도에 따라 연대기적인 구성에도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시인의 출생, 2. 지사들의 마을 명동, 3. 해란강의 심장 용정, 4. 송몽규 이야기, 5. 평양에서의 7개월, 6. 다시 용정으로 돌아오다, 7. 젊음의 정거장, 서울 연희전문학교, 8. 6침방의 고장, 일본, 9. 체포, 재판, 복역, 옥사, 10. 시인윤 동지묘³²⁾

서장 저 높고 이룩한 산, 제1장 출생과 가문, 제2장 영광의 북경 60일, 제3장 학예의 연찬, 제4장 출세와 가화, 제5장 완당바람, 제6장 제주도 유배시절(상), 제7장 제주도 유배시절(하), 제8장 강상 시절, 제9장 북평 유배시절, 제10장 과천시절, 종장 완당의 서거와 사후의 평가³³⁾

이와 같은 구성은 연대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단계마다

31) John A. Garraty, 앞의 책, p.242.

32) 송우혜, 앞의 책, 차례.

33) 유홍준, 앞의 책, 차례.

인물의 성장과정을 알 수 있고, 성장 과정에 중요한 삶의 국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삶의 과정을 인과적인 과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각 단계마다의 고유성, 따라서 질적인 일종의 변신의 과정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전자에 따르면 인물을 특정한 의도에서 일관되게 형상화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인과성에서 벗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후자에 따르면 각 단계마다 인물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일관된 인격의 흐름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총체적인 인물상을 그리면서 일관성을 형상화하는 변증법적인 서술을 고려해야 한다.

집필의 분량 조정도 필요하다. 평전 작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집필 분량을 늘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줄일 수도 있다. 또한 인물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시기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배열도 서장에서 시작하여 종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 머리말에서 간략히 시작하여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둘째, 여행기의 형식을 들 수 있다. 이 형식은 연대기적인 줄거리로 전개되기보다는 여행기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하는 유형이다. 이 형식은 본격적인 평전과 같이 인물의 일대기를 세세하게 탐색할 수는 없다. 평전이 여행기라는 형식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인물의 이야기가 여행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 평전의 기준에서 보면 미달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행기가 주는 생동하는 현장감과 현장에서 느끼는 평전 작가의 감흥이 인물의 여러 삶의 모습들과 만남으로써 작가의 의도와 관점이 독자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특히 교육적인 관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평전 양식이 시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평전 형식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가령 권영민이 쓴 “그의 고향을 찾아 짧고 슬프고 아름답게 살다 간 삶의 자취”라는 부제가 달린 「용정에서 만난 시인 윤동주」는 이런 유형의 한 예를 보여준다.

북간도 여행길에 들른 용정(龍井) 땅에서 나는 운명의 시인 윤동주를 세 번이 나 만났다. 그가 다녔던 중학교의 교정에서, 그가 태어난 용정 명동촌의 낡은 교회당 꼭대기 하늘에서 그리고 그의 외로운 주검이 누워 있는 용정 광신향 산 언덕 무덤 가에서 나는 그를 만났다. 그의 고뇌 어린 눈빛을 보았고 그의 떨리는 음성 을 들었고 우수의 뒷모습을 훑쳐보았다. 그것은 스무 날에 가까운 만주 여행길의 고된 여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가장 황홀한 만남이었다.³⁴⁾

인용된 부분을 보면 작가는 윤동주를 세 번 만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것은 작가의 북간도 여행길의 여정과 일치한다. 실제로 작가는 '새벽을 노래한 민족 시인'에서 시작하여 '용정 시절의 윤동주', '명동촌에서 다시 만난 윤동주'를 거쳐 '두견의 울음으로 다시 듣는 시인의 소리'로 끝을 맺는다. 작가는 윤동주의 삶의 자취를 더듬으면서 그의 체취가 묻어 있음직한 곳에서 그에 대한 감회와 그에 대한 전기적인 사실, 그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동주에 대한 전문가적인 배경 지식과 윤동주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에서의 감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작가 자신의 자기조정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형식은 인물의 혹은 인물에 대한 자료를 모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서술 방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가령 윤동주가 다닌 광명학교 시절 학적부를 소개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친절하게도 유기천 교장 선생님은 학교 서무실 캐비닛에 보관해 두고 있는 옛날 광명학교의 학적부철 속에서 윤동주의 학적부를 가려내어 내게 보여 주었고, 졸업생 대상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그의 이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학급 전체에서 중간 성적인 그의 학적부에서 나는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고는 혼자 기뻐했다. 모든 과목이 대부분 80점을 오르내리는 점수였으나 오직 일본어만이 50점 이하의 낙제 점수였던 것이다.³⁵⁾

여행지에서 작가가 학적부를 보게 되는 정황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거니와 학적부에서 그가 받은 감회도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와 같

34) 권영민, 앞의 글, p.204.

35) 권영민, 앞의 글, p.208.

은 서술방식은 다음과 같은 서술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윤동주가 다닌 학교들 중에서 학적부가 남아 있기는 광명중학시절부터이다. 윤동주의 광명중학시절의 성적 관계 기록은, 일본 조도전대학 교수 대촌익부(大村益夫) 씨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윤동주를 연구하는 연구가로서, 1985년에 북한도에 가서 윤동주 관계 유적을 모두 답사했었다.

윤동주는 4학년 때 16과목을 수강했다. (중략)

윤동주는 4학년, 5학년 통틀어 일본어 성적이 제일 나빴다. 그는 그간 온진, 송실 등 반일계 학교만 다니며 한국어로 수업을 받은 반면, 다른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아예 일어로만 수업해온 터이니 아무래도 일어 실력이 달랐을 것이다.³⁶⁾

앞의 인용에서 일본어 과목 성적이 좋지 못함을 두고,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말 속에는 민족 시인으로서의 윤동주에 대한 관점이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인용에서는 윤동주의 일본어 과목 성적이 좋지 못한 원인을 반일계 학교를 다님으로써 일본어 수업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일계 학교만 다니며’라는 말에서 작가의 인물에 대한 관점을 알아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을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여행기 형식이 주는 장점을 살리는 평전 쓰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회상의 형식을 들 수 있다. 정병욱의 「잊지 못할 윤동주」와 문익환의 「내가 아는 시인 윤동주 형」³⁷⁾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역시 본격적인 평전에는 미달형이지만 회상을 통해 인물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형식이 될 수 있다. 회상의 형식이 암시하고 있듯이 인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다. 물론 인물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쓰여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사실성이 떨어지기도 하거니와 인물의 생애를 정당히 평가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정병욱과 문익환은 윤동주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다.

36) 송우혜, 앞의 책, pp.164~165.

37) 문익환, 「내가 아는 시인 윤동주 형」, 권영민 편저, 앞의 책.

「잊지 못할 윤동주」에 의하면 정병욱은 윤동주를 연희전문학교에서 만났다. 윤동주는 정병욱보다 문과(文科)에서 두 학년 위였고, 나이는 다섯 살이나 위였다. 그렇지만 윤동주가 작가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신입생(新入生)인 나는 모든 생활의 대중을 그로 말미암아 잡아 갖고, 촌뜨기의 때도 그로 말미암아 벗을 수 있었다. 책방에 가서도 그에게 물어 보고 나서야 책을 샀고, 시골 동생들의 선물(贈物)도 그가 골라 주는 것을 사서 보냈다. 오늘 날, 나에게 문학(文學)을 이해하고, 민족(民族)을 사랑하고, 인생(人生)의 참뜻을 아는 어떤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로지 그가 심어 준 씨앗의 결실(結實)임을 나는 굳게 믿고 있다. 그러기에 이 글을 쓰는 순간(瞬間)에도 그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³⁸⁾

윤동주는 작가에게 문학을 이해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인생의 참뜻을 알게 해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이다. 그만큼 윤동주는 작가에게 중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 따라서 작가는 “윤동주(尹東柱)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마는 것이지만, 동주에 대한 나의 추억(追憶)은 조금도 퇴색(退色)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말로 윤동주에 대한 회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윤동주와의 만남과 그의 인물됨을 소개하고, 그와 얽혀 있는 일화들을 그의 시작 활동과 관련하여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보다는 그의 삶의 모습과 그에 대한 해석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민족 시인으로서의 인물에 대한 관점은 유지되고 있다.

「내가 아는 시인 윤동주 형」을 보면 문익환은 윤동주와 국민학교 6년 간을 한 교실에서 지냈고, 용정 은진중학교에서 3년, 평양 숭실학교, 광명학원 중학부를 함께 다녔으며,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나는 누구보다도 동주 형을 안다고 생각해 왔다”로 시작한 「내가 아는 시인 윤동주 형」은 윤동주와 관련된 일화나 사실을 중

38) 정병욱, 「잊지 못할 윤동주」, 『고등 국어 상 교과서』, 교육부, 1996.

심으로 서술된다. 윤동주를 가까이서 오랫동안 함께 한 작가는 그와 함께 한 세월만큼이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낸다. 그런데 작가 역시 윤동주에 대한 민족 시인으로서의 윤동주, 빼어난 시인으로서의 윤동주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명동 소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그 작은 교실에서 민족심을 불태웠”다고 한다든지, “명동은 복간도 민족 운동의 요람이었고 정신적인 중심지”였다는 점을 강조한다든지, 일본어 과목이 있었지만 “우리는 ‘일본말’이라고 하면서 일본말을 통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언급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만 15세 때 쓴 「초 한 대」라는 시를 보면서 “이 시를 쓸 때 벌써 동주 형은 자신을 어린 양 그리스도처럼 민족의 제단, 인류의 제단 위에 오를 깨끗한 제물로 보았던 것이다”라고 한 점은 그를 민족 시인 내지는 탁월한 순교자로서의 반열에 놓은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대부분 그 작가가 인물과 가까운 인물들이므로 해서 그 인물의 세목들을 잘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작가의 관점이나 의도에 의해서 과도하게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작가는 인물의 인물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 평전 쓰기의 위계화 모색

이 글은 평전(전기) 쓰기(읽기)가 비평적 문식력 신장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평전 쓰기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 그 필요성과 전략 등을 언급하였다.

평전(전기)은 어린이가 문학 즉 전래 동화, 창작 동화와 더불어 어린이 문학의 한 축을 이루으로써 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완당, 전태일, 이제마, 채 계바라, 마르크스, 히틀러, 간디’ 등과 같은 사상가나 운동가들의 평전과 ‘윤동주, 이육사’와 같은 문학가들의 평전이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독자층을 확

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전이 어린이의 문학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어 교과에서 평전(전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미미한 실정이다.

평전은 전기의 일종으로 비평적 전기에 해당한다. 비평은 자연과학이나 논리학과는 다른 대상과 주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러나 대상과 주체를 일련의 준거를 가지고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와 관련된 '비판'이라는 개념과는 그 위상이 다른 것이다. 비평은 대상에 대한 평가 행위와 더불어 비평 주체의 자기 평가와도 관련됨으로써 자기 조정 과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작가(독자)가 텍스트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동적 판단을 통해 텍스트에 담긴 세계를 전유하는 과정 전체³⁹⁾를 일컫는다. 이는 읽기 행위뿐 아니라 쓰기 행위와도 관련된 개념인데, 비평적 문식력과 연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평전 쓰기는 텍스트를 읽고 비평적인 감상문 쓰기로서의 비평적 글쓰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평전을 쓰기 위해서는 문학적·비문학적인 글뿐 아니라 사진, 인터뷰, 현장 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전 쓰기는 인지적·정의적 측면뿐 아니라 활동이 강조되는 종합적 사고와 실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고도의 고등 정신 능력과 그 실천 능력으로서의 비평적 문식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지적 차이에 따른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작가가 잘 아는 인물, 동시대의 인물, 자료가 풍부한 인물, 평가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인물에서 점차 그렇지 않은 인물을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전기와 허구성이 개입된 전기로 나누어 그 위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낮은 수준 단계에서는 인물과 관련된 사진이나 인물이 쓴 원고를 수집하여 전기(documentary biography)를 구성할 수 있다.⁴⁰⁾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39) 김성진, 앞의 글, p.20.

40) 윤동주의 원고를 수집하여 해설을 덧붙인 책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을 가지자!” → 1929년 - 걸음마를 배울 당시의 에르네스토, 어머니와 친구인 메르세데스 그라마스. → 에르네스토, 아버지, 셀리아. → (중략) → 쿠바로 떠나기 전에 멕시코의 로스가미토스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있는 체. (중략) → 195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파트의 발코니에서. → 시에라의 오솔길에서 → 군대의 정치국에서 루이스 라반데이라. 1960년 아바나. → 골프가 굳이 비밀스런 취미일 수는 없었다. → 자신의 사진기로 사진을 찍기 좋아했던 체. → 뜨거운 동지애로 묶였던 체 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두 사람은 긴말이 필요없이 제국주의의 억압으로부터 라틴 아메리카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느꼈다. → (중략) → 체 게바라는 쿠바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후에도 몸소 노동의 본을 보여주었다. (중략) → 두 눈을 뜨고 죽은 체의 모습. 체는 영원의 순례자였다. 사랑이 담긴 희망을 내보였고, 투쟁을 선택하는 용기를 보였다. 그가 “모든 진실된 인간은 다른 사람의 뺨이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단언했을 때 이것은 ‘함께한다’는 것을 뜻한다. 체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까지 함께했다. 그는 바로 휴머니즘의 전도자였다. (하략)⁴¹⁾

위의 인용을 보면 게바라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연대순으로 배열한 다음 그것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해석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사진을 싣고 사진에 대하여 설명과 해석을 하는 방식은 본문 앞에서 다루든지, 아니면 본문 속에서 본문과 함께 다룰 수 있다. 위의 인용을 보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행위만 언급한 경우도 있고, 인물간의 관계를 해석한 경우, 인물에 대하여 해석한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덧붙인 경우 등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작가들에게 인물의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 해석, 평가를 시도해 보도록 하는 방법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물의 삶을 글로 쓸 경우 인물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지 않고 인물의 삶의 이야기를 기술하거나 보고하는 정도의 글쓰기도 가능하다. 일종의 재구성적 전기(recreative biograph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인물의 삶을 극적이고 흥미롭게 서술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41) 장 코르미에, 김미선 역, 『체 게바라 평전』, 실천문화사, 1997.

다음 단계로 인물의 삶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인물의 삶을 이야기하는 글쓰기(critical biography)를 지도한다. 이 형식은 작가의 비평적 관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글쓰기이며, 사실에 입각한 전기 쓰기의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전기는 허구성의 정도 유무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도 가능하다. 이러한 글쓰기에는 '허구화된 전기(fictionalized biography)'와 '전기적 허구(biographical fiction)'가 있다.⁴²⁾ 허구화된 전기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사실에 입각해 있지만, 대화는 종종 인물이 했음직한 상상적인 대화로 구성된다.⁴³⁾ 전기적 허구는 특정한 인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위나 사건 대화 등이 전적으로 상상적으로 꾸며낸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전기(평전)는 사실성이 강조되는 것에서 허구성이 강조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수준별 교육을 가정하면 위에서 제시한 방법들은 그 위계화에 따라 평전(전기) 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여행, 회상, 대화,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다면 더욱 풍부한 전기(평전) 쓰기 교육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권영민(1995), 『용정에서 만난 시인 윤동주』,
 권영민 편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문익환(1995), 『내가 아는 시인 윤동주 형』,
 권영민 편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문학사상 자료연구실(1995), 『일제 암흑기의 찬란한 빛』,
 권영민 편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문학사상사.

42) Jerry D. Flack, 앞의 책, p.13.

43) 이러한 유형인 『소설 동의보감』이 중학 교과서에 실려 있다.

- 송우혜(1998), 『윤동주 평전』, 세제사.
 유흥준(2002), 『완당평전1』, 학교재.
 이견청(1994), 『윤동주 : 신념의 길과 수난의 인간상』, 건국대출판부.
 장 코르미에, 김미선 역(1997), 『체 게바라 평전』, 실천문화사.
 정병욱(1996), 「잊지 못할 윤동주」, 『고등 국어 상 교과서』, 교육부.

2. 논저

- 김명순, 「문식력 개념의 변화 양상과 재개념화 방향」, 『21세기 문식력과 국어과 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가을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02.
 김성진, 「문학교육에서 비평활동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제130호, 2002.
 김용덕(1987),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문영진(2001), 「서사 교육의 방향 설정에 관한 일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13집.
 박수자(2002), 「21세기 문식력과 국어교육」,
 『21세기 문식력과 국어과 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가을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반숙희 · 박완수(2000), 『갈래별 글쓰기』, 나라말.
 —————(2001), 『갈래별 학생 글모음』, 나라말.
 우한용(1987), 「작가론의 방법」, 『한국근대작가연구』, 삼지원.
 ———(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7.
 이상섭(2001),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임경순(1997), 「비평교육에 대한 일 고찰-「낙동강」 논의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제25집, 서울대국어교육과.
 최인자(2001), 「문식성의 사회·문화적 접근법과 국어교육」,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
 Flack, Jerry D.(1992), *Lives of Promise*, Teacher Idea Press.
 Garraty, John A.(1957), *The Nature of Biography*, New York:
 Alfred · A · Knopf.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Edel, Leon, *Literary Biography*, 김윤식 역(1997), 『작가론의 방법 : 문학전기란 무엇인가』, 삼영사.

Todorov, Tzvetan(1987), *Mikhail Bakhtin : The Dialogical Principle*, 최현무 역, 『바흐친 :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초록〉

비평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쓰기 교육

- 평전(評傳)을 중심으로 -

임 정 순

이 글은 평전(전기) 쓰기(읽기)가 비평적 문식력 신장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평전 쓰기에 대한 관점을 밝히고 그 필요성, 전략, 실천 방안을 언급하였다.

평전 쓰기는 뛰어난 인물이나 특정한 영역과 관련된 인물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타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석·평가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인격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전을 쓰는 행위는 타자와의 특별한 만남이라는 점, 학습자들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 고등 사고 능력의 신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실천적 활동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평전 쓰기의 전략으로 인물에 대한 비평적 관점 정하기, 평전에 쓰일 자료 선별하기, 여행기, 회상기, 일대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줄거리 구성하기 등을 들 수 있다.

수준별 교육을 고려해 볼 때 사실에 입각한 전기와 허구성이 개입된 전기에 따라 위계화할 수 있다. 자료 전기, 재구성 전기, 비평적 전기, 허구적 전기, 전기적 허구 등의 순으로 위계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여행, 회상, 대화,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도입한다면 더욱 풍부한 전기(평전) 쓰기 교육이 될 것이다.

【핵심어】 비평적 문식력, 전기, 평전, 평전 쓰기, 전략

〈Abstract〉

Writing education for critical literacy development

- centering on critical-biography -

Lim, Kyung-so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research writing education for critical literacy development centering on critical-biography(評傳). Thus this article mentioned point of view about critical-biography writing and its necessity, strategy, practical method.

Critical-biography writing education ought to contribute learner' personality development through not a great subject, special career subject but total understanding, interpretation, evaluation about others' life

Critical-biography writing is very important educational object in that it is special meeting with others, learner' development promotion, high thought ability development, and practical activity etc.

There are making point of view, selecting materials, configurating plot in strategy of critical-biography writing.

And then, This article asserted practical hierarchial method : documentary biography → recreative biography → critical biography → fictionalized biography → biographical fiction. Method of travel, recollection, dialogue, interview etc will be als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critical-biography(biography) writing competence.

【key words】 critical literacy, biography, critical-biography, critical-biography writing, strategy.